

# 군산 강소특구, 최우수 특구로 우뚝

### 지난해 기업·혁신 기관들, 다양한 우수사례 창출...과기정통부 '최우수강소특구' 선정

군산 강소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2023년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강소특구 연차평가는 전국 14개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올해는 3개 부문(△특구 사업성과 △특구 구성원 만족도 △지자체의 특구발전 관련 기여도), 6개 지표(△공통사업 성과 △특화사업 성과 △입주기업 육성 △입주기관 만족도 △재정투입 △특화분야 집중노력)로 세분화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 강소특구는 연구소기업 설립 6건, 기술이전 65건, 창업 11건, 투자액 79.9억원, 일자리 창출 299명, 매출액 125억원 등 모든 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기술이전과 일자리창출은 목표대비 각 382%, 85%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연구소기업(두이엔지㈜)과 특구기업(㈜미래에스, ㈜다네스트, 모네(주) 등)간 상생협업으로 내연차량을 개조하여 친환경 전기차 신시장으로 진입하였으며, 군산대학교 창업보육기업인 이브이앤솔루션(주)은 강소특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콜드체인 특화 전기트럭 시장을 선도하는 우수사례를 창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특구기업간 협력사업과 일환으로 추진한 '협력 Value-up R&BD' 지원사업에서 최종 3과제 선정 중 군산 강소특구 2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 9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특화분야 수요기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기술창업 및 기업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지역 특

화분야 클러스터 육성지원 등 중점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업과 여러 혁신기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최우수 특구 선정이라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강소특구 육성 사업을 통해 잘 육성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 앵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강소특구는 2020년 7월에 지정받아 군산대학교를 기술핵심 기관으로 기술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지역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기업 성장과 창업, 연구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건물 신축공사 즉각 중단하라"

### 환경부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군산시의회 환경부 의원은 지난 28일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건물 신축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환경부 의원은 바로 어제 육도면 선유 2구,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공사 현장을 다녀왔으며 "선유도출장소 신축공사 현장 부근은 고군산 진이 있었던 장소로 고군산 진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한데 이처럼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 사라질까 봐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유도출장소는 군산해경 소속 새만금과출소가 관할하는 야미도, 선유도, 비안도 3개의 출장소 중 하나"라며 "군산해경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유도출장소의 중점업무는 유람선 및 낚시어선 통제, 연안 안전관리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특히 "선유도출장소는 상근 직원이 없는 탄력근무형 출장소로 비안도출장소만 24시간 3교대로 1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기존 선유도출장소 건물은 18평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군산시와 군산해경이 18평 규모의 상근 직원이 없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런 난리를 치러야만 되겠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군산해경은 예산보다 부



지외 면적이 2.3배 커진 40여 평 규모의 선유도출장소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공에 들어갔다"며 "주민들은 지난달, 5월 13일 군산해경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군산해경도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했다.

또한 "선유1구에 있던 기존 선유도출장소는 20개월 전 2022년 11월에 이미 철거되었는데 선유도출장소 건물도 없는데 지난 20개월 동안 무슨 문제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나"면서 "왜 이 문제가 주민들과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해경은 지금도 예정부지와 신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20평 내외 규모의 적절한 출장소 공간을 다시 찾아보는 것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과 소송을 불사하며 신축을 강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현명하겠냐"고 했다.

그리고 "해양경찰 출장소 운영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출장소의 주요 업무는 첫째 선박 출, 입항 신고 관리 둘째 각종 해양사고 조종조치"라며 "이 업무는 누가 보아도 배 한 척도 못 들어오는 선유2구 경찰과출소 옆이 아니라 어선 등의 입출항이 잦고 각종 해양사고 시 즉각적인 출동 등의 조치가 용이한 선유3구가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의원은 "현재도 선유도출장소 건물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주민들과 협의하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할 것"이라며 "소망한 대로"면서 시급을 다투며 시민과 소송을 불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선유도출장소 건물 신축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중국 청위안시 시장단, 군산 방문

### 우호도시 체결 10주년 기념... 경제·산업분야 교류 협력안 모색

군산시의 중국 우호도시인 청위안(淸遠)시 시장단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군산시를 방문했다.

청위안시 시장 일행(시장 원원싱, 溫文星)의 이번 군산 방문을 통해 군산과 청위안 양 도시는 우호도시 체결 10주년을 기념하고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으로 관심 받고 있는 '고군산군도'와 우리시 대표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을 소개하며 군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청위안시 시장단은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소개한 자동차 부품업체도 시찰했다.

원원싱(溫文星) 시장은 "진심어린 환대에 깊이감사드리며, 군산시의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이전까지 기업 유치와 이에 따른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양 도시간 경제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첫날 강임준 군산시장 주재로 마련된 청위안시 시장단과의 간담회에서는 2014년 우호도시를 체결하여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양 도시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양 도시의 현황 소개와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공유하였다.

방문 2일째에 군산시는 청위안시 시장단에게 최근 '가고싶은 K관광'으로 관심 받고 있는 '고군산군도'와 우리시 대표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을 소개하며 군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청위안시 시장단은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소개한 자동차 부품업체도 시찰했다.

원원싱(溫文星) 시장은 "진심어린 환대에 깊이감사드리며, 군산시의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이전까지 기업 유치와 이에 따른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양 도시간 경제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청위안시 시장단의 군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호도시 체결 1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양 도시 간에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민간기록물 공모전 수상작 발표

### 대상 '함열현선생안' 선정... 수상작 총 43점

익산시는 지역의 기록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개최한 '제4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43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간으로 추억하는 당신의 익산'을 주제로 지난 5월까지 진행됐으며, 84명이 응모해 근대와 현대의 익산을 연결하는 2,500여 점의 기록물이 접수됐다.

평명단을 수록하고 있으며, 익산·여산·함열·용안 네 개 군 중 유일한 선생안인 것으로 보여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황씨 일가가 제출한 200여 점의 기록물 중 △익산·여산·함열·용안 네 개 군 통합(1914년)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익산군지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리여고 학생이던 어머니가 일본어로 기록한 일기장과 아들이 번역한 번역본 △전북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기세배놀이의 시연 과정을 담은 농기세배도가 선정됐다.

익산시는 수상작 선정에 위해 기록·역사·한국학·문화재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두 차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8명, 장려상 31명 등 총 43점을 선정했다. 심사결과는 7월 1일부터 익산시민기록관(archives.ik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에는 함라노소에서 제출한 함라와 함열이라는 공간의 기록을 담은 '함열현선생안'이 선정됐다.

해당 기록물은 1453년에 부임한 이귀종 선생부터 1742년 서울에서 파직된 이덕항 선생까지 총 96명의 함열현 수

시상식은 오는 9월 개최하는 공모전 전시회 개막식에서 있을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익산시장상과 상금(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응모된 기록물들은 도록으로 제작하고, 익산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9~10월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 수상작 12점 발표

군산시가 지난 28일 '군산시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공모했던 '군산시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에는 총 241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거친 24작품의 윤리인·오프라인 시민투표에는 1,922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산시는 1차 심사(50%)와 2차 시민투표(50%)결과를 토대로 12작품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가장의 무게'가 선정됐으며, 다투어 아빠의 산책시간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어서와 새벽수유는 처음이지? △아빠는 인형뽑기 △재발 한 순가터만 더 △아빠가 최고예요 △내가 웃게 웃게 아니야 △햄버거 놀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빠는 말티플라이어 △유전자는 못 속여 △우리는 아기돌보미가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오는 7월 6일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함라산 임도면 쾌적한 산림환경으로 정비

익산시가 7월 중공을 목표로 함라산 임도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함라산 임도 시설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호우로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2007년도에 조성된 노후 시설을 개보수해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임도 전망데크 4개소는 경관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사색(4색) 전망데크'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휴양과 경관이라는 테마에 초점을 맞춰 정비해 금강과 용포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